

미 증시, 연준에 대한 신뢰 부족과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중국의 경제 봉쇄 확대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그 여파로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자 하락 출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을 보여주는 경제지표들의 발표로 국채 금리가 하락 했음에도 여전히 시장은 연준에 대한 신뢰 부족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 매물 출회. 특히 그동안 상승하던 에너지 업종이 급락한 가운데 반도체, 대형 기술주 등도 약세를 보여 나스닥이 4%대 하락 마감(다우 -1.99%, 나스닥 -4.29%, S&P500 -3.20%, 러셀2000 -4.21%)

특이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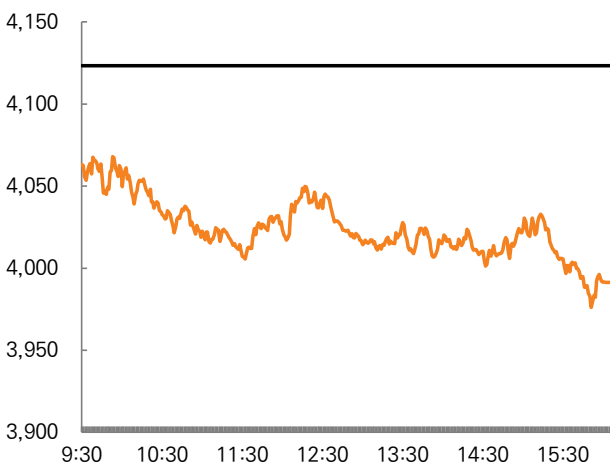
• 엑스모빌(-7.89%), 코노코필립스(-9.74%) 등 에너지 업종은 사우디의 아시아 수출 물량 가격 인하와 중국 봉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큰 폭 하락.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철강 및 비철금속의 낙폭이 확대되자 뉴코(-4.77%), US스틸(-4.85%)도 하락. 리비안(-20.88%)은 보호예수가 끝나자 포드(-5.91%)와 JP모건의 지분 매각 소식에 급락. 또 다른 주주인 아마존(-5.21%)도 이 여파로 하락. 엔비디아(-9.24%)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우려와 비트코인 급락 여파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테슬라(-9.07%), 코인베이스(-19.50%), 마이크로스트래티지(-25.55%), 블록(-12.82%) 등 관련주도 동반 급락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3.21%, MSCI 신흥 지수 ETF는 2.88%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76.62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90% 하락. KOSPI는 1% 내외 하락 출발 예상

• 미 증시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기술주의 하락이 뚜렷한 가운데 에너지 업종 등 대부분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점이 부담. 그렇지만 하락 요인들은 대부분 전일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의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제한. 오히려 뉴욕 연은이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 등을 감안 ‘인플레이션 피크’ 이슈가 부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 여기에 필수 소비재 등 경기 방어주가 강세를 보인 점도 주목.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1% 내외 하락 출발 후 종목 장세 전망

S&P500 일중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610.81	-1.27	상해종합	3,004.14	+0.09
KOSDAQ	860.84	-2.64	홍콩항생	20,001.96	-3.81
DOW	32,245.70	-1.99	베트남	1,269.62	-4.49
NASDAQ	11,623.25	-4.29	유로스톡스 50	3,526.86	-2.82
S&P 500	3,991.26	-3.20	영국	7,216.58	-2.32
캐나다	19,999.69	-3.07	독일	13,380.67	-2.15
일본	26,319.34	-2.53	프랑스	6,086.02	-2.75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인플레이션 피크 이슈와 연준에 대한 신뢰 부족

글로벌 주식 시장의 부진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준의 금리인상, 그리고 그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진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특히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으로 연준의 75bp 금리인상 가능성이 부각된 점이 기술주 하락을 더욱 자극

지난 주말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데일러 준칙에 따르면 적정 금리는 3.63%로 약 275bp 인상의 여력이 있다” 라며 더욱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주장해 다시금 75bp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를 자극. 여기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75bp 인상은 가능성이 낮지만 상황이 바뀌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해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과 궤를 달리하는 모습. 다만, 보스틱 총재는 “50bp 금리인상은 역사적 기준에 비추어 충분히 공격적이다” 라고 언급하며 75bp인상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

이런 가운데 뉴욕 연은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인 6.6%에서 6.3%로 하락했다고 발표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 심리를 높임. 물론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3.9%로 상향 돼 높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우려는 여전함을 보여줌. 그리고 그동안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견인한 중고차 가격의 하락세가 뚜렷한 점도 특징. 지난 주 발표된 맨하임 중고차 가격이 전월 대비 1.0%, 전년 대비 12.3% 하락해 11일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 둔화 기대를 높임. 이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

한편,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지난 4월 말 기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역대 최고치인 59.4%를 기록했으나 5월에 들어서며 52.9%로 낮아졌고, 특히 강세 전망이 16.4%에서 26.9%로 큰 폭 증가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부정적인 전망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긍정적인 전망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점차 호재성 재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식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75bp 금리인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한 때 3.2%를 넘어서는 등 상승을 보였고 달러화도 강세 폭을 확대하자 기술주 중심으로 급격하게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임. 특히 중국 경제 봉쇄로 수출 성장세가 둔화돼 글로벌 경기 침체 이슈를 자극한 점도 영향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로 국채 금리는 하락 전환했으며, 달러화 또한 약세로 전환하는 등 안정을 보였으나 주식시장은 이에 동조하지 못하고 지속 하락. 결국 신뢰의 문제라는 점에서 심리적인 부분이 오늘 미 증시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추정. 이러한 변동성은 이번 주 있을 여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소비자물가지수를 통해 완화 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 비트코인 관련주 급락

엑슨모빌(-7.89%), 셰브론(-6.70%), 코노코필립스(-9.74%) 등 에너지 업종은 사우디의 아시아 수출 물량 가격 인하와 중국 봉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큰 폭 하락.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철강 및 비철금속의 낙폭이 확대되자 뉴코(-4.77%), US스틸(-4.85%), 프리포트 맥모란(-6.23%)이 하락했으며, 미국 파종 면적 증가 가능성 부각 속 곡물 가격이 하락하자 CF(-8.96%), 모자이크(-12.79%) 등 농산물 관련 기업들도 부진. 리비안(-20.88%)은 보호예수가 끝나자 포드(-5.91%)와 JP모건의 지분 매각 소식에 급락. 또 다른 주주인 아마존(-5.21%)도 이 여파로 하락. 우버(-11.58%)는 인센티브 지출을 줄이는 등 비용 절감을 발표하자 하락

엔비디아(-9.24%)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우려와 비트코인 급락 여파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테슬라(-9.07%), 코인베이스(-19.50%), 마이크로스트래티지(-25.55%), 블록(-12.82%) 등 관련주도 동반 급락.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우려로 엔비디아는 물론 AMD(-9.42%) 등과 함께 세일즈포스(-3.59%), 인튜이트(-7.25%) 등 소프트웨어 업종도 동반 하락. 반면, 월마트(+1.17%), 코스트코(-0.90%), 타겟(-0.45%) 등 소매 유통업종은 물론 켈로그(+2.47%), 김벌리 클락(+1.99%), P&G(-0.25%) 등 필수 소비재는 견고한 모습을 보임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0.32	대형 가치주 ETF (IVE)	-2.49
에너지섹터 ETF (OIH)	-10.70	중형 가치주 ETF (IWS)	-3.21
소매업체 ETF (XLY)	-4.26	소형 가치주 ETF (IWN)	-3.48
온라인소매 ETF (EBIZ)	-5.66	대형 성장주 ETF (VUG)	-4.41
금융섹터 ETF (XLF)	-2.39	중형 성장주 ETF (IWP)	-5.48
기술섹터 ETF (XLK)	-3.87	소형 성장주 ETF (IWO)	-5.08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4.63	배당주 ETF (DVY)	-1.15
클라우드 ETF (CLOU)	-4.88	신흥국 고배당 ETF (DEM)	-2.56
미국 리츠 ETF (VNQ)	-4.40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1.62
주택건설업체 ETF (XHB)	-0.42	미국 국채 ETF (IEF)	+0.74
바이오섹터 ETF (IBB)	-5.20	하이일드 ETF (JNK)	-1.11
헬스케어 ETF (XLV)	-2.59	물가연동채 ETF (TIP)	-0.39
곡물 ETF (DBA)	-2.34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35
반도체 ETF (SMH)	-5.06	모멘텀 ETF (MTUM)	-4.78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필수소비재	800.02	+0.05	-0.00	-2.82
유틸리티	363.54	-0.77	+1.52	-7.01
산업재	787.95	-2.41	-2.23	-6.40
커뮤니케이션	195.25	-2.44	-3.74	-15.38
금융	562.80	-2.46	-1.92	-10.67
헬스케어	1,472.80	-2.57	-2.34	-11.52
소재	513.80	-3.24	-3.46	-7.49
IT	2,364.58	-3.94	-6.04	-11.67
경기소비재	1,176.90	-4.26	-8.73	-16.99
부동산	267.43	-4.62	-5.82	-13.97
에너지	578.26	-8.30	-0.34	-4.53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하락 출발 후 종목 장세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3.21%, MSCI 신흥 지수 ETF는 2.88%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276.62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9% 하락. KOSPI는 1% 내외 하락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출발했으나, 장 중 유로존과 일본 경기 둔화 우려로 달러화의 강세폭이 확대되자 매물이 출회되며 낙폭이 확대. 특히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재확인하는 발언을 한 점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 결국 그동안 시장의 하락 요인이었던 연준의 금리인상과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투자 심리 위축을 자극했다고 볼 수 있음. 더불어 중국의 수출이 경제 봉쇄 여파로 주춤한 점도 영향을 주며 KOSPI는 1.27%, KOSDAQ은 2.64% 하락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기술주의 하락이 뚜렷한 가운데 국제유가 급락으로 에너지 업종 또한 약세를 보인 점도 부담. 그렇지만 하락 요인들은 대부분 전일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의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제한. 오히려 뉴욕 연은이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 등을 감안 ‘인플레이션 피크’ 이슈가 부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

더불어 미 증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필수 소비재 등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상승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어진다고 해도 가격 전가력이 높은 종목군이자 경기 둔화에도 견고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군은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1% 내외 하락 출발 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등을 기다리며 종목 장세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견고한 미국 고용시장

미국 4월 고용동향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120.78보다 소폭 하락한 120.18로 발표되었고 세부 항목 8개 중 3개만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여전히 미국 고용의 견고함을 보여줌. 다만, 노동력 부족 완화 신호는 여전히 없어 임금 상승 압력이 높음

미국 3월 도매재고는 지난달 발표(mom +2.8%) 보다 둔화해 전월 대비 2.3% 증가했으나 예상에 부합. 판매대 재고 비율은 1.22로 지난해 발표된 1.23보다는 소폭 하락. 내구재 비율은 1.57로 변함이 없었던 반면 비내구재 비율이 0.92로 소폭 증가

중국 4월 수출입 통계는 수출이 지난달 발표된 전년 대비 14.7% 증가보다 둔화된 전년 대비 3.9% 증가를 기록했으나 예상(yoy +3.2%)보다는 견고. 수입은 지난달 발표된 전년 대비 0.1% 감소나 예상치인 3.0% 감소와 달리 전년과 변화하지 않음



국제유가, 사우디 가격 인하 소식에 급락

국제유가는 중국의 경제 봉쇄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자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 더 나아가 사우디 아람코가 아시아 수출 6월 인도분 가격을 5월 인도분 9.35달러보다 낮은 4.4달러로 인하한 점도 급락 요인. 여기에 EU가 EU 유조선이 러시아 원유를 운송하는 금지를 철회할 것으로 고려 중이라는 소식도 국제유가 하락 요인. 대체로 국제유가의 하락은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족에 의한 것도 있으나, 사우디와 EU의 조치로 인해 낙폭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 천연가스도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

달러화는 연준의 75bp 금리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전망 속 여타 환율에 대해 장 초반 강세. 특히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로 GDP가 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자 달러 대비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여타 환율의 약세도 달러화 강세 요인. 다만, 장 후반 뉴욕 연의 기대 인플레이 하향 조정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강세폭이 축소. 물론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등 상품 환율은 달러 대비 약세폭 확대. 더불어 터키 리라화, 멕시코 페소 등 신흥국 환율 또한 달러 대비 약세폭이 컸음

국채금리는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앞으로 275bp나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또한 75bp 금리인상을 완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때 3.2%를 상회하기도 했음. 그러나 뉴욕 연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 6.6%에서 6.3%로 낮아졌다고 발표한 이후 되돌림이 유입되며 하락 전환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

금은 장중 국채 금리 상승으로 하락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가 높아지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중국 경제 봉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국제유가 급락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큰 폭 하락. 곡물은 미국 중부 대평원 지역에 지난 주 내린 비로 토양 수분이 충분해 파종 면적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며 하락. 더불어 상품가격 급락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도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4.62%, 철근은 1.84%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103.09	-6.09	-1.98	Dollar Index	103.709	+0.05	-0.03
브렌트유	105.94	-5.74	-1.52	EUR/USD	1.0560	+0.09	+0.50
천연가스	7.07	-12.09	-5.40	USD/JPY	130.26	-0.23	+0.08
금	1,858.60	-1.29	-0.27	GBP/USD	1.2334	-0.11	-1.26
은	21.82	-2.45	-3.38	USD/CHF	0.9935	+0.46	+1.60
알루미늄	2,755.00	-3.06	-9.75	AUD/USD	0.6950	-1.78	-1.42
전기동	9,237.50	-1.88	-5.45	USD/CAD	1.3008	+1.03	+0.99
아연	3,615.00	-4.16	-11.98	USD/RUB	69.1984	+1.83	-2.29
옥수수	772.00	-1.62	-3.92	USD/BRL	5.1547	+1.48	+1.37
밀	1,092.75	-1.42	+3.53	USD/CNH	6.7592	+0.61	+1.27
대두	1,585.25	-2.27	-3.65	USD/KRW	1,274.00	+0.10	+1.44
커피	206.10	-2.07	-4.54	USD/KRW NDF1M	1,276.62	+0.50	+0.69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036	-9.07	+5.51	스페인	2.212	-2.10	+20.00
한국	3.420	0.00	+18.50	포르투갈	2.244	-1.50	+18.60
일본	0.248	+0.40	+1.70	그리스	3.609	+5.10	+24.30
독일	1.095	-3.70	+12.70	이탈리아	3.148	+1.40	+28.9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